

중도, 청산도, 유치·장평, 창평

슬로시티로의 초대

“내 고향 슬로시티 우리가 알려야죠”

4 담양 창평 슬로시티 해설가 모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수록 묘한 매력이 빠지는 게 담양 창평의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담양군 창평면에 생긴 ‘슬로시티(Slow City) 해설가’의 초대 회장을 맡고 있는 최익준(41)씨. 그는 요즘 고향을 배워가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최 회장은 창평을 다른 지역과 달리 ‘맛과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슬로시티라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창평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방식의 ‘슬로 라이프(Life)’를 한 곳에서 모두 만끽할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굽이굽이 돌고 도는 돌담길을 걷기만 해도 천천히 걷는 ‘슬로 페이스(Pace)’를 체험할 수 있고, 된장·고추장 등 장류를 비롯해 쌀엿과 국밥·한과·홍시 등 ‘슬로 푸드(Food)’를 어디에서든 맛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쌀엿은 한 집 건너 만들 정도로 특산물이다. 찹쌀로 만드는 쌀엿은 생강을 섞어 맛을 내고, 입에 붙지 않는 엿으로 유명하다. 쌀엿을 원료로 해서 한과도 만든다. 그래서 창평 한과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최 회장은 “창평처럼 특산물이 있어 경제가 유지되고 느린 삶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창평의 또 다른 멋은 전남도 민속자료 5호인 고재선 가옥을 비롯한 고정주·고광표·고재욱 전

통가옥으로 대표되는 ‘슬로 하우스(House)’다.

최 회장은 “지역민들의 여유롭고 풍성한 마음과, 오염되지 않은 환경이 어우러져 창평을 진정한 슬로 시티로 만들었다”며 “어렸을 적 뛰어놀았던 돌담길, 시장통에서 먹던 국밥과 쌀 엿, 고풍스러운 고택(古宅) 등에 이렇듯 많은 멋과 맛이 담겨있는 지는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역의 역사성도 자랑스러워 한다. 창평은 의병장인 고경명

3개월 교육 37명 활동

절반 이상이 창평 출신

슬로시티 발전 이끌어

장군의 후손이 들어와 살면서 고씨들의 집성촌이 됐고, 의병활동도 왕성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창평이 슬로 시티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광주라는 대도시와의 근접성 및 도로 여건을 볼 때 도시화가 아닌 전원 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창평면 인근의 대나무 박물관,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가사 문화관 등 담양군의 풍부한 자원네트워크도 슬로시티로서 창평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

다. 그는 “도시를 현상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 과거지향적이고 역사성이 있다는 것만이 슬로시티의 모든 것은 아니다”며 “슬로시티 창평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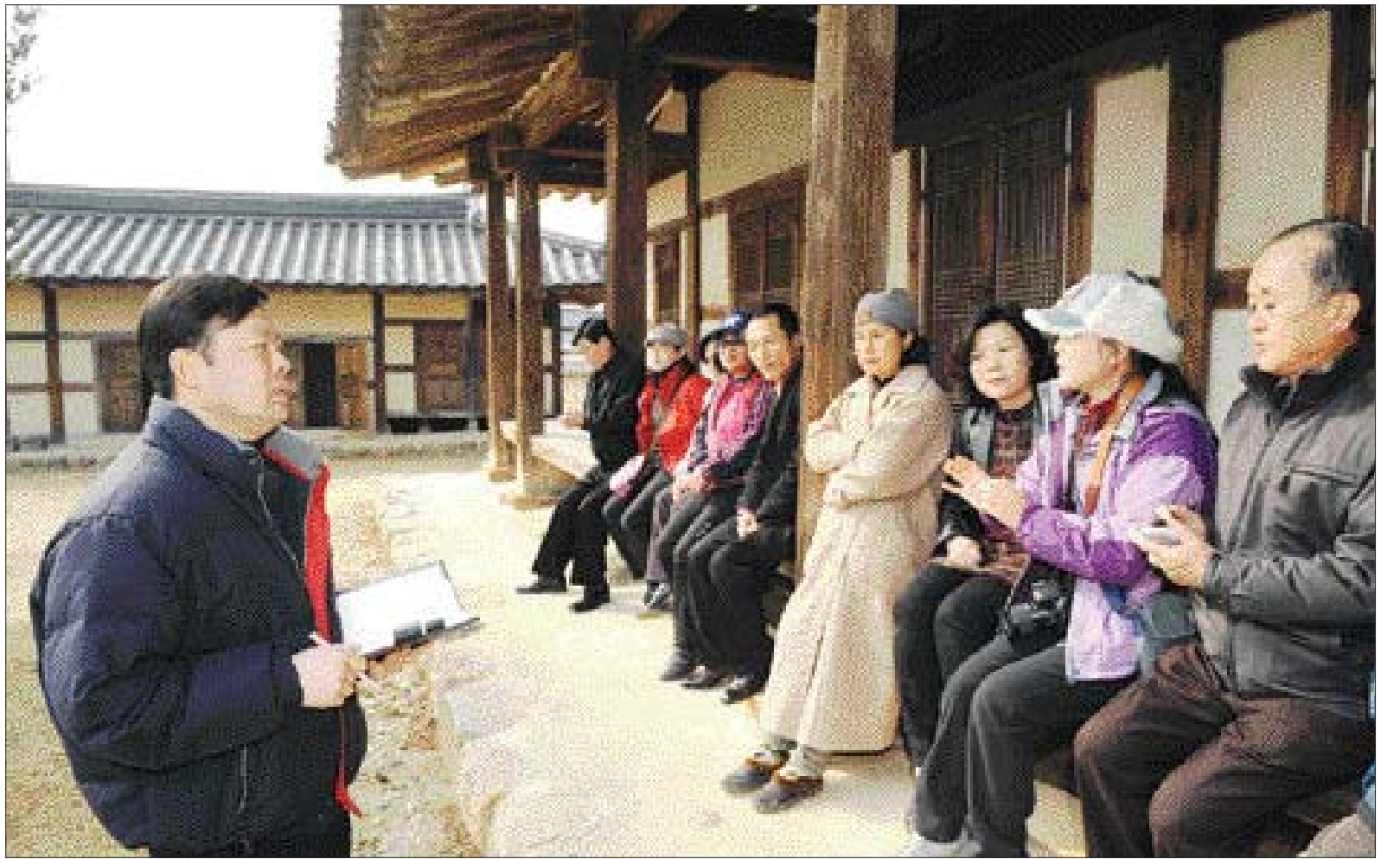
이 때문에 최 회장을 비롯한 삼지천 슬로시티 해설가 37명은 지난해 정규 교육을 모두 마쳤지만, 아직도 매월 2회씩 모임을 하고 슬로 시티의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최 회장은 “해설가 모두가 창평 슬로시티의 발전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창평을 진정한 슬로시티·살 맛나는 슬로시티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슬로시티(Slow City)란

고유한 자연 환경과 생활 방식, 전통을 식을 보존하고 이를 토대로 ‘살의 질’을 높여가는 마을. 한국에선 신안군 중도와 완도군 청산도, 장흥군 유치·장평, 담양군의 창평이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개 국가에서 101개 도시가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담양군 창평면 삼지천마을에서 최익준(왼쪽) 창평 슬로시티 해설가 회장이 해설가들과 함께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행노트

금성산성을 다녀와서...

새봄, ‘금성산성’으로 간다. 너른 조망과 밀려올 역사의 숨결에 맘이 설렌다.

아! 완연한 봄기운. 가지마다 움푹울쭈렷 새순 돋는 기운 창창하다. 산성입구 매표소가 보인다. 무리지은 산악회원들부터 울방울방 아이들 앞세운 가족들까지. 봄맞이 산행 준비 흥겹다. 등산화 짚고 동여매고 산에 오른다. 산성입구 보국문에서 충용문-동문-연대봉-북문-서문-철마봉-노적봉 순으로 성곽을 따라 한 바퀴를 돌아볼 참이다.

초입은 넓고 완만한 입도. 각지에서 불려든 나들이객과 어울려 걷는다. 산새소리가 물오른 나뭇가지를 비집고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섞인다. 숲길을 지나 보국문 웅장하다. 크고 작은 돌덩이들을 한뼘 한뼘 쌓아올린 성벽은 백성들의 고귀한 생명의 소산일 터.

“이것이 바로 가진 것도, 권력도 없는 민초들의 희생이야.”

나이 지긋한 어른신이 한동안 성벽을 바라보다 나직이 소감을 밝힌다. 멋진 풍경에 대한 기대를 잠시 접고 역사의 흔적 앞에 숙연한 마음을 가져본다. 외성남문인 보국문에선 내성남문인 충용문이 보인다. 이중으로 축조한 남문은 성 내부부를 견고하게 보호하는 요새다.

충용문을 지나 성곽 가장자리에 서자 담양벌이 펼쳐진다. 저 샅터를 지키고자 피땀으로 성을 쌓았으리라. 성안 마당엔 산성을 축조하느라, 또 지키느라 생명을 바친 조상을 위로하는 세 개의 위령탑과 제단이 있다.

담양호의 푸르름에 산행 노고 달래고

단단한 성곽 돌덩이 민초들 보국 의지가...

동문 쪽을 향하자 동자암이 지적이다. 수염을 거의 배꼽까지 기른 청산늑대와 동자승들이 무애와 수행을 하며 살고 있다. ‘금성산성 지킴이’를 자처하는 청산늑대와 합장한 뒤, 흙길을 밟아 오르니 우뚝한 시루봉을 지고 동문이다. 동문은 마치 조출한 돌담길 같다.

여기부터 순창쪽이 바라다 보인다. 다시 숲길 지나 연대봉에 서면 감천산이 한눈에 잡힌다. 가을 감천산의 불꽃같은 단풍이 떠오른다. 연대봉 지나 북문터에 닿으면 멀리 담양호다. 북문터 여기저기 점심을 먹는 산행객들 표정이 즐겁다.

서문쪽으론 비탈진 내리막. 서문터에서 철마봉과 노적봉으로는 아주 가파른 오르막이다. 가히 등산이라 할 만하게 숨차다. 담양호의 푸르름이 산행의 노고를 달래다. 마침내 깎아지른 절벽 바위 위의 철마봉이다. 오름길에 대한 보살인 듯 담양호가 흰히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일품이다.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기분이다. 4시간 여 만에 노적봉에 올라 돌아보니 철마봉 바위산과 그 옆으로 담양호, 남문쪽 담양벌까지 최고의 장관이 펼쳐진다. 봉우리 끝 바위틈에 그림 같은 소나무 한 그루. 산성의 애환을 외로이 지켜온 영물 같다.

금성산성은 반나절 산행에 너무 많은 것들을 내준다. 단단한 성곽에 담긴 조상의 굳은 의지. 그 뜻으로 지켜낸 아름다운 산천과 삶의 터전... 역사를 음미하며 산성을 종주했다는 뿌듯함이 가슴 가득 차오른다. 윤영호(프리랜서)

담양 금성산성을 둘러보는 방문객들의 뒤로 충용문(왼쪽)과 보국문이 바라다 보인다.



SAFA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SAFA SF-01

SAFA SF-01

“만제 어디서든 조이케질만 있으면 피로는 확 풀어줍니다.”

042)365-3200

1688-1471 02-487-8256

NAVER